

폭염 속 서점가 피서 각광

책의 바다로 '피서 삼매경' "마음속까지 시원해져요"

"우리는 서점으로 놀러가요."

더위를 피해 방학을 맞은 어린 자녀와 함께 서점을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회사원 박태상(39·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휴가기간 중인 27일 두 아이와 함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영풍문고'에 들렀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아도니스 코너로 달려가 책을 고른 뒤 박씨 옆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박씨는 "아이들에게 공부도 되고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좋다"면서 "마냥 피서 계획도 없고 휴가비도 넉넉지 않다면 이렇게 서점에서 책을 보는 것도 좋은 피서법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영풍문고' 측은 마련한 20㎡ 크기의 타원형 마루(어린이 동산)엔 방학이 시작된 후 하루 평균 300여 명이 더위를 잊으며 책을 읽고 있다.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

방학 맞아 가족단위 많이 찾아

서점서도 책 읽는 공간 마련

책 판매량 평소보다 20% 증가

효된 최근엔 방문객들이 더욱 늘었다.

광산구 송정동에 사는 홍영진(여·37)씨는 "더위를 피해 우연히 서점엘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서 책 읽는 엄마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면서 "아이 덕분에 나도 책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폭염경보가 내린 27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영풍문고'에 더위를 피하면서 책을 읽으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몰렸다. 광주 시내 대형 서점가는 방학 이후 피서를 겸한 책읽기 열풍이 불면서 아동서적 판매량이 20% 이상 늘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동구 금남로 충장서림 지하매장에 마련된 학습서적 코너엔 친구끼리 온 어린이들이 하루 평균 250~300여 명이나 된다. 서점 측은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10㎡ 크기의 공간에 의자를 마련해 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2학년인 유아영(9)양은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놀만한 곳이 없지만 서점은 시원하고 만화책도

많아서 좋다"고 웃었다. '영풍문고' 김중수 부지점장은 "방학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평소와 비해 2배가량 늘면서 아동도서 판매량이 전월대비 20%가량 증가했다"며 "아이들이 오랫동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실내온도를 25도에 맞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나원침 (7273) 김장동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hemicals Corporation) products, including DS (Diphenyl Sulfone) and various industrial chemical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sales and distribution.

폭염 속 사고 잇따라

차량 과열 화재·물놀이 가다 교통사고

냉방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오후 2시49분께 나주시 문평면 고막원 삼거리에서 구모(3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의 산타레 차량의 엔진이 가열돼 불에 탔다.

앞서 25일 오후 6시30분께에도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을 지나던 S버스 시내버스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5시32분께는 나주시 중앙동 Y빌딩 옥상에 설치된 변압

기가 냉방시설 과다 사용에 따른 과부하로 인해 폭발, 3시간 가량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27일 오후 2시55분께는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에서 울산 84사44XX호 2.5t 화물차(운전자 김모·57)가 물놀이 이틀 온 광주50다36XX호 크레노스 승용차(운전자 임모·37)를 들이받아 임씨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더위를 피해 물가를 찾는 피서객이 늘자 27일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안 앞바다는 보물 창고?

12세기 무렵 고려청자 또 인양

최근 충남 태안군 대섬 일대에서 고려청자 수천 점을 적재한 고선박이 발견된데 이어 또다시 인근 바다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됐다. 27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근흥면 마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앞바다에서 어부 정모도 인근 앞바다에 씨가 조업 중에 인양한 고려청자 4점. /연합뉴스 어부 정모(48)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앞바다에서 어부 정모도 인근 앞바다에 씨가 조업 중에 인양한 고려청자 4점. /연합뉴스 어부 정모(48)

씨가 조업 중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 4점을 인양,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청자는 연관문 양 대접 3점, 접시 1점 등 모두 4점으로, 부박하고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점으로 미뤄 12세기 무렵 서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종발굴팀은 내달 5일부터 신고지점에 대한 조사가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고려청자가 발견된 지점은 최근 고선박이 발견된 태안군 근흥면 정족리 대섬과 5km 떨어진 '관자목' 근해다.

'관자목'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주요 항로로 물길이 거센데다 각종 선박들이 난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으로 미뤄, 해저 유물 등이 다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성낙준 관장은 "청자 발견 장소의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선박의 잔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수중에 있는 유물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18일에는 근흥면 대섬 인근 바다에서 고려청자 수천점을 실은 채 침몰한 고선박 한 척이 발굴됐다. /연합뉴스

신정아씨 '가짜 학위' 고소인 조사 벌여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백찬하 부장검사)는 신정아(여·35)씨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 동국대 조원생 학사 지원본부 교무팀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고 27일 밝혔다.

조 팀장은 검찰에서 고소장에 적시한 대로 신씨가 학위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동국대에 제출된 과정과 이같은 업무방해로 인한 학교 측 피해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신씨에 대해 입국시 통보 및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입국 후에도 바로 신병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신씨가 예일대의 학위증 명확인서와 캔자스대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제출, 공정한 교원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임용액(법정 영배) 동국학원 이사장 명의로 지난 23일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도심서 부상 당한 황조롱이 발견

○광주시 도심에서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민원상담 중이던 경찰이 발견.

○27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시 동구 충장로 밀리오레 앞 S 식당 유리창에 몸길이 28cm인 황조롱이가 부딪쳐 바다에



떨어진 것을 금남지구대 조윤환 경사들이 발견해 광주시 동구 산수동 영재동물병원으로 옮겼다는 것.

○치료를 맡은 박재주(40)원장은 "1년생인 이 황조롱이가 유리창에 부딪힌 일시적인 충격으로 날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몸 상태가 좋아지면 인적이 드문 산중에 날려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타의 텃새인 황조롱이는 몸길이 30~33cm까지 자라며, 도시의 건물에서도 번식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주최 공예품 공모대전

심사위원 부인 작품 수상 '논란'

전남도가 주최하는 공예품 공모대전에서 특정 심사위원의 가족이 출품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심사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37회 공예품 대전' 및 '제10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한 이모(45)씨가 공예품 부문 대상(대회장 상)과 관광기념품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의 남편인 '광주·전남 공예협동조합' 김모(47) 이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응모자들이 "불공정한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예협동조합은 전남도로 부터 이 대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김씨는 아내가 출품한 '청자 소품 세트'와 또 다른 경쟁작품이 대상과 금상을 놓고 표정에 들어가 직전에야 부인의 출품사실을 알린 뒤 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관광기념품 부문에서 부인의 작품을 놓고 상의 등급을 논의할 때 부인의 작품이 출품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27일 부인이 받은 상을 전남도에 반납하고 '광주·전남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김씨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사퇴했지만, 작품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저질 튀김기름으로 가짜참기름 만들어

10억 제조·유통 8명 적발

부산 사하경찰청은 27일 가짜 참기름 5만 병, 시가 10억원 상당을 만들어 일본 유명 참기름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48·부산 동구 수정동)씨를 구속하고 중간 유통업자 이모(3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 무려가 비밀공장을 차린 뒤 질이 낮은 튀김용 옥수수기름과 중국산 참기름을 10 대 1의 비율로 섞은 가짜 참기름 80여만ℓ를 만들어 일본 가이토 제유(주)의 유명 참기름 상표인 '카도 야킨지루시' 상표를 부착해 판매해

온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참기름에 향신료와 유해성분을 추가로 넣어 진짜 참기름과 같은 향이나 색깔을 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김씨가 5년 이상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온 점으로 미루어 가짜 참기름을 전국적으로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가짜 참기름 제조공장 등을 상대로 정교한 판매 규모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 food product, likely a type of rice or noodle, with text in Korean and a phone number 367-9000.



광주경찰청 신청사 준공 기념 헬기 인질 구출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들이 27일 신청사 준공 후 버스에 납치된 승객을 구하기 위해 헬기에서 하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대산동에 새로 마련한 경찰특공대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부지 4만㎡·연면적 2천522㎡)로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